청송심씨 심벌마크

青松沈氏宗報

발행인 : 회 장 심대평
편집인 : 문화이사 심갑택
서울시 중구 을지로30길 47, 찬경회관 5층
전 화 : (02)2267-7857
(02)2267-9339
F A X : (02)2269-7755
인 쇄 : SNS인쇄
02-2277-0245

격월간 제140호(1955년 7월 5일 창간) 홈페이지 | www.csshim.or.kr 2019년 11월 30일(토)

고문단 및 회장단에 "한마음대회 성공" 결과 보고

"5000여 일가 모여 숭조돈목, 뿌리의식 심었다"

대종회는 2019년 11월 1일(금) 서울 퇴계로 동보성에서 고문단 및 회장단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송심씨한마음대회 결과 보고회"를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심대평 회장은 고문단과 회장단에서 한마음 대회를 위해 가정 먼저 솔선하여 물심양면으로 적극 협조해 주신 것이 큰 힘이 되어 청송심씨한마음대회를 성공리에 마칠 수 있었다는 감사인사를 전하였다.

이어서 행사 참가규모와 주요내용 및 후원금 등 결산내역을 자세히 설명하고, 특히 "이번 행사에 우리 문중의 800년 역사상 최초로 5천여 일가들이 모여 시조 추향을 봉행하고 일가 간 끈끈한 情을 나누며 沈門의 가치인 「孝와 友愛」의 정신을 드높이고 젊은 세대들에게 뿌리의식과 심문의 자긍심을 심어주는 한편, 우리 조상들의 훌륭한 업적과 전통이 후대에 이어져 우리 문중이 미래에 더한층 도약하는 희망과 기대를 갖게 되었다"고 이번 대회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보고하였다.

청송 찬경루(讚慶樓) 국가지정문화재(보물)지정 예고

지금은 경북도유형문화재 제183호

청송군 청송읍 월막리 소헌공원내 위치하고 있는 우리 심문(沈門)의 대표적 상징적 역사문화자원이기도 한 찬경루(贊慶樓, 경북도유형문화재 제183호)가 지난 11월 14일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예고 되었다.

이번에 국가문화재로 지정·승격된 찬경루는 조선 세종조 당시 청송부사로 재임하던 하담(河擔)이 1428년 객사인 운봉관(雲鳳官)과 함께 부속 관영 누각으로 세종대왕의 아들 8형제가 외가인 소헌왕후 청송심씨 시조(始祖)를 위해 지은 정면 4칸, 측면4칸, 2층 누각 형태의 건축물로써 청송이 당시 왕비인 소헌왕후와 그 가문 청송심씨의 관향임을 들어 당시 경상도 관찰사 홍여방이 그 은덕을 찬미해 '찬경루'라 이름하여 지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후 이 누각은 1792년 조선 정조 때 청송읍 내 큰 화재로 소실되었다가 그 이듬해 다시 중건되었는데 지금의 누는 이 당시 중건된 것이다. 문화재청은 이번 국가지정문화재 승격 배경에 대해 찬경루는 용전천변 자연암반 위에 지형을 그대로 살리며 자리 잡아 독특한 입지를 유지하고 있으며 온돌방도 누각에서 살펴보기 드문 형태이고, 온돌방 앞의 마룻바닥을 한단 높게 설치한 것은 연회 등 행사 시 의전 또는 제례 시 제상이 놓여지는 부분으로 일반적인 누각 형태에서 흔하지 않는 사례이고 또 기둥 상부에 날카롭게 다듬어진 이익공의 포와 기둥 간에 걸쳐진 대들보의 형식과 결구는 조선후기의 양식을 잘 나타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찬경루는 건축과 관련된 풍부한 창건 및 중건기록, 관영 누각으로써 기능에 부합되고 정체성을 잘 표현하고 있는 평면 구성, 조선후기 양식을 잘 표현하고 있는 가구양식으로 그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아주 뛰어나며 또한 누각 앞을 흐르는 용전천과 현비암으로 대표되는 그 풍광은 그 어디에도 비할 바 없는 절경을 이루고 있다고 지정 배경을 밝혔다.

이번 찬경루의 국가지정문화재 승격으로 기존의 덕천마을 내 송소고택, 소류정 등과 더불어 청송을 찾는 역사문화관광자원으로 더한층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 청송 심남규 -

찬경루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우리 청송심가 이야기(10)

지극한 사랑은 모든 걸 이룬다

희수(喜壽)할아버지와 기생 일타홍(一朶紅)

沈厚燮
아동문학가 · 교육학박사

얘야, 너는 앞으로 어떠한 사람과 만나 혼인할 것 같니?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 자신의 배우자(配偶者)를 잘 만나는 것만큼 중요한 일도 없을 거야.

우리 선조님들 가운데에 희수(喜壽, 1548~1622) 할아버지가 계셨어. 영의정을 지낸 연원(連源) 할아버지의 동생 봉원(逢源) 할아버지의 손자야. 봉원 할아버지도 돈지동녕부사를 지냈고, 아버지 건(鍵) 할아버지도 충청도 어사로 나갔을 정도이니 희수 할아버지는 누가 봐도 뼈대 있는 집안의 당당한 자제(子弟)였지.

그런데 세 살 때에 갑자기 아버지를 잃고 가세가 기울자 잠시 방황을 한 듯 해.

희수 할아버지가 열다섯 살 때의 일이라고 해. 다 떨어진 옷에 헤진 갓을 쓰고 고관 자제들과 어울려 다녔대.

하루는 어느 재상 집 잔치에 갔는데 첫눈에 들어오는 여인을 보게 되었대.

이 여인이 바로 충청남도 금산(錦山) 출신의 기생 일타홍(一朶紅)이었어. 그 때 나이는 열일곱이었다고 해.

희수 할아버지가 일타홍의 곁에 앉아 농담을 하려하자 일타홍이 점잖게 시(詩)를 읊었어.

關關雎鳩 在河之洲(관관저구 재하지주)
窈窕淑女 君子好逑(요조숙녀 군자호구)

이 시는 〈시경(詩經)〉 첫머리에 나오는 '관저(關雎)'라는 노래였는데 '우는 물새는 물가에서 노는데, 아리따운 아가씨는 군자의 짝이라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어.

그런데 이 노래의 뜻을 몰랐던 희수 할아버지는 멀뚱하게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어.

그러자 일타홍이 말했어.

"도련님, 댁이 어디인지요?

제가 나중에 잠시 찾아뵈어도 될 지요?"

이리하여 집으로 찾아온 일타홍은 희수할아버지 어머니에게 절을 올리며 말했어.

"아드님은 지금 한창 글을 읽어야 할 시기인데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아드님은 앞으로 큰일을 하실 분입니다. 제가 이 집으로 와서 아드님이 글을 읽도록 하려 합니다. 허락해 주소서."

이리하여 일타홍은 그 동안 모은 돈까지 모두 내어놓으며 희수 할아버지에게 말했어.

"이것으로 당분간 양식은 마련할 수 있을 테니 아무 걱정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글공부를 하소서." 일타홍은 희수 할아버지에게 〈천자문(千字文)〉부터 읽게 했어. 그리고는 책을 다 읽을 때까지 마주 앉지도 않았어. 부지런히 빨래하고 밥일을 하였어.

어쩌다가 희수 할아버지가 일타홍의 손이라도 잡아 보려하면 단호히 뿌리치며 말했어.

"대장부가 뜻을 세웠으면 기어이 이루셔야 합니다. 다음은 〈명심보감(明心寶鑑)〉을 읽으소서. 책을 다 읽으실 때까지는 제 옆에 오실 수 없습니다."

이에 희수 할아버지도 열심히 노력했어. 깊이 생각하여 하나를 배우면 금방 열을 깨쳤어. 그리하여 희수 할아버지는 스물두 살이 되던 해에 마침내 〈사서삼경(四書三經)〉까지 모두 읽고 과거를 보아 진사시(進士試)에 급제하였어. 일타홍과 만난 지 7년이 되던 해였어. 그리고 뒤이어 2년 뒤 대과(大科)에도 급제하였어.

"이제 나는 그대와 혼인하고 싶소."

그러나 일타홍은 뿌리치며 말했어.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생으로 지낸 적이 있습니다. 서방님은 양반집 자제이고 앞으로 나라의 큰일을 하셔야 할 테니 그에 걸맞은 양반집 규수와 혼인하소서. 저는 그저 곁에서 소리 없이 지내고자 할 뿐입니다."

희수 할아버지의 어머니도 일타홍을 며느리로 삼고 싶었지만 일타홍은 한사코 손사래를 쳤어.

"서방님 앞길에 누가 되기 싫습니다. 서방님의 스승이신 노수신(盧守愼), 노극신(盧克愼) 선생 형제분의 집안에 좋은 규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는 수 없이 희수 할아버지는 노극신 선생의 따님과 정식 혼례를 올렸어. 그러자 일타홍은 나이 어린 정식 부인에게 깍듯이 예를 올리며 집안 어른으로 모셨어.

세월이 지나 일타홍도 이제 서른여덟 살이 되었어.

"서방님, 청이 있습니다. 그 동안 오래 고향을 떠나있었더니 문득 고향이 보고 싶어집니다. 서방님께서 금산군수(錦山郡守)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희수 할아버지는 곧 임금에게 청하여 금산군수로 부임하게 되었어.

그러나 얼마 있지 않아 일타홍은 그만 병이 들고 말았어.

"서방님, 저는 이제 원이 없습니다. 서방님도 과거 급제하셨고, 저 또한 고향에 왔으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안 될 말이오. 이제부터 행복하게 살아갑시다."

"아닙니다. 저는 그 동안 마음을 많이 조려 그런지 병이 깊어진 듯합니다. 저 때문에 서방님을 고생시킬 수는 없습니다."

일타홍은 모든 음식을 끊고 마침내 숨을 거두고 말았어. 일타홍은 숨을 거두기 전에 '달을 보며(賞月)'라는 시(詩)를 한 편 남겼어.

희수 할아버지 산소 왼쪽 일타홍 묘단

靜靜新月最分明
우뚝 솟은 초승달 오늘따라 더욱 밝고

一片金光萬古请
한 조각 달빛은 만고에 정다워라.

無限世間今夜望
넓고 넓은 세상 오늘 밤 달을 보며

百年憂樂幾人情
백년의 슬픔과 즐거움 느끼는 이 몇일까.

희수 할아버지는 대성통곡을 하였으나 소용없었어. 희수 할아버지도 일타홍을 보내며 시를 한 편 남겼어.

一朶芙蓉載柳車
한 떨기 고운 꽃이 버들상여에 실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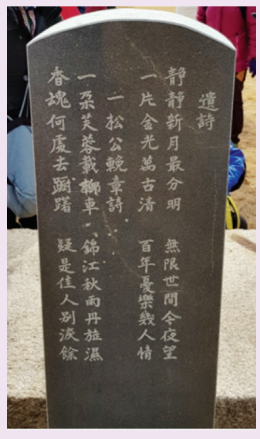
香魂何處去躊躇
향기로운 혼이 가는 곳 더디기만 하네

錦江秋雨丹旌濕
금강에 가을비 내려 붉은 명정 적시니

疑是佳人別淚餘
그리운 내 임의 눈물인가 보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에 있는 희수 할아버지의 무덤 앞에는 '一朶紅錦山李氏之壇(일타홍금산이씨지단)'이라는 제단이 세워지고, 비석 뒷면에는 위의 두 시가 나란히 새겨져 있단다.

희수 할아버지는 나랏일을 잘 보아 이조판서를 거쳐 좌의정에까지 올랐단다. 아름다운 사랑은 이루지 못할것이 없구나.



일타홍 묘단
뒷면의 詩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찾게 하다’

청성백 초배위 청주송씨 묘소를 찾게 한 며느리 신씨의 묘표

1. 소헌왕후(세종대왕비)의 큰 어머니 = 동양군부인 신씨

청성백의 장남은 도총제 심인봉이다. 도총제의 처인 동양군 부인 신씨의 묘표 뒷면에 ‘위 시어머니 묘[상고묘, 上姑墓]’ 라고 쓰여 있어서, 청성백 심덕부 초배위 청주송 씨의 묘소를 찾게 되었다. 이렇게 귀중한 자료가 세월이 흐르면서 풍화되고 마모되어 글씨를 알아보기 힘든 상황이 올 것 같다. 따라서 종보에 그 탁본을 게재하여 가문의 역사적 자료를 남기고자 한다.

2. 청주송씨 묘역 개요 : 청성백 심덕부(沈德符, 1328~1401)의 처 정경부인 청주송씨와 그 며느리 신씨의 묘소이다. 심덕부는 조선 태조 이성계와 더불어 조선을 건국한 주역이며, 그 부인 청주송씨는 고려 말 장군이며 ‘청주 송씨’ 가문의 실질적인 시조인 송유충의 따님이다.

◈ 묘소 찾은 경위(〈청성백 산소사적〉[산의실기] 153쪽): 오래 전부터 청성백과 청주 송씨가 합장되었는 줄 알고 양위를 합설하여 향사를 지내왔다. 그런데 영조 기묘년(1759년)에 도총제공의 후손으로서 원주에 사는 종인이 도총제공 배위 동양군부인 신씨의 묘가 청주의 애동(현재 분평동)에 상하분으로 되어 있는 묘소를 찾았다. 그 아래 묘에는 작은 비석이 있었는바, ‘위는 시어머니의 묘’ 라고 되어 있었다. 그 뒤 임진년(1772년, 영조 48)에 경기감사 심수(沈繡)가 무너진 청성백의 묘소를 종인 심동은(沈東殷)에게 살피게 하였다. 즉시 가서 청성백 묘소를 파서 보니 합장이 아니었다. 이에 따라 초배위 송씨의 묘소가 청주에 있음이 분명해 졌던 것이다.

◈ [위 묘소] 정경부인 송씨는 청성백 심덕부와 혼인하여 인봉·의구·계년 등 세 명의 아드님을 낳아 국가의 동량으로 만들고 별세하여 친정인 청주에 안장되었다. 청성백을 내조하여 청송심씨가 조선의 대문벌이 되게 한 초석을 마련하였기에 우리 청송심문은 청주송씨의 덕행을 길이 칭송하고 그 뜻을 기리고 있다.

◈ [아래 묘소] 동양군부인 신씨는 청성백의 큰 아들인 심인봉의 부인이다. 심인봉은 좌군도총제를 역임한 국가의 동량으로 슬하에 평산부사 심호와 2녀를 양육하셨다. 특히 신씨의 묘표에 기록된 ‘위 시어머니묘’ 라는 문구 때문에 실전했던 시어머니 청주송씨의 묘소를 찾게 한 사실은 특별히 기억할 일이다. 청성백의 손녀가 세종대왕비 소헌왕후 심씨이고, 그 소헌왕후의 큰 어머니가 바로 동양군부인 신씨이다. 이에 신씨가 별세하자 세종대왕께서 애통해 하시고 직접 내관을 파견하여 제사지내셨으니, 그 의미가 특별한 것이다([세종실록] 107권, 세종 27년 2월 10일 갑인 2번째기사 1445년: 내시 배훤(裵萱)을 청주에 보내어 졸(卒)한 도총제 심인봉(沈仁鳳)의 아내 신씨(申氏)에게 치제(致祭)하였다. (遣宦者裵萱于淸州, 祭卒都摠制沈仁鳳妻申氏).

3. 신씨 묘표의 탁본과 해석

① 묘표 앞면 ② 묘표 뒷면

都摠制沈仁鳳妻東陽郡夫人申氏之墓

《正統十年》乙丑 四月初二日葬
上姑墓左政丞靑城伯沈德符妻上黨宋[氏]
墓]塒縣監禹敬之 塒郡事沈實 子縣監 灝

묘표 앞면 묘표 뒷면 사진 청주 송씨 묘소를 찾게 한 며느리 ‘신씨 묘표의 뒷면’ (31cm x 91cm) 탁본 비문의 활자화

③ 묘표 뒷면의 음독과 해석

·음독: (정통10년) 을축 사월초이일장 *정통10년=1445년(세종 27년)
상고묘좌정승청성백심덕부처상당송(씨묘) 서현감우경지서군사심실자현감호

·해석: 정통 10년, 을축년 4월 2일에 장례지냄
위 시어머니 묘는 좌정승청성백의 처 상당(청주) 송씨의 묘이다. [동양군 부인 신씨의] 사위는 현감 우경지, 군사(군수) 심실이고, 아들은 현감 심호이다.
* 사위 심실은 풍산 심씨로 당대 명문가임

4. 산신제 상석

① 청주송씨 묘소 우측 언덕에 있는 산신제(山神祭) 상석은, 송씨 할머님이나 며느리 신씨의 묘소 앞에 있던 상석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상석의 좌측 전면에 글씨가 있었으나 마모된 것으로 짐작된다.

〈산신제 상석 전체 사진〉 ⇒

상석의 좌측면 - 글자가 희미하게 있는 듯함 ⇒

상석의 과학적 분석 - 필자가 충남대에 의뢰하여 실험한 사진

필자가 상석의 글자를 확인키 위해 상석을 만져 보았을 때, ‘청성백 심덕부처’ 등의 글자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너무도 희미하여 사진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글자를 확인코자 했으나, 판독에 실패하였다.

② 울산 내금위 종회에서 발행한 파보의 심덕부 항목에 ‘병인년에 상석을 세웠다(純祖丙寅設床石)’ 라는 기록이 있다. 순조 11년은 1806년으로, 이때 현재 송씨 묘소 우편 상단의 산신제 상석은 송씨 묘소의 상석인 것 같다. 상석의 닳아진 글씨를 만져보면, ‘청성백 덕부’ 등 글씨가 희미하게 보이기 때문에도 그렇다.

5. 묘역의 보존과 문화재 지정 및 활용의 필요성 :

이곳은 세종대왕의 왕비인 소헌왕후의 큰어머니 묘소로, 조선왕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세종대왕의 할아버지인 이성계의 절친한 친구가 청성백 심덕부이고 조선 건국의 원훈이다. 청주송씨 할머님은 그 청성백의 초배위로서 이성계를 친히 만났을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청성백을 내조하여 훗날 조선왕조의 건국에 내조의 공을 세운 것이다. 이 같은 인연으로 보건대, 청주 송씨의 묘소를 향토유적 등으로 지정하여 보존함은 물론, ‘세종대왕과 초정약수 축제’ 행사에 활용해야 할 것이다.

필자 : **심재석**(종보편집위원)

강화도 충렬사에 모셔진 12세조 휘: 현(誢)

11월 16일(10월 중순에 丁字가 되는 날) 11시 강화도 충렬사에서 12세조 휘: 현의 후손들과 강화 부 군수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祭享을 봉행하였다.

공은 충렬사에 29인의 위패를 봉안한 가운데 5위로 西二位에 배향되어 있다.

공은 안효공의 7대손으로 수찬공 (諱: 達源)의 증손이시다. 병자호란(丙子胡亂)이 일어나자 공은 돈영부도정(敦寧府都正) 이라는 직책도 버리고 구국의 일념으로 강화로 들어갔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江華가 함락되고 백성은 청나라 군에 무참히 짓밟히고 살육 당했으며, 물품을 약탈당하는 수난을 당하자 분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그 참혹한 상황을 통탄하는 유소(遺疏: 임금께 올리는 글)를 쓴 다음 부인 宋氏와 함께 자결하였다.

공은 옥천(沃川)과 풍덕(豊德)과 철원(鐵原)의 수령으로 부임하면서 가는 곳마다 그 치적이 현저하였다.

공이 벼슬을 버리고 강도로 들어갔으나 끝내 강도가 청군에 함락되자 가묘(家廟)와 신주(神主)를 외딴곳에 묻어두고 손수 임금께 올리는 문서를 쓴 다음 의관을 정재하고 북쪽을 향하여 네 번 절한 후 宋씨 부인께 말하였다.

“나라가 깨지고 집이 망하였는데 바위구멍에 숨어 설사 화를 면한다 해도 그렇게 산다는 것이 구차하지 않은가!” 하니 송씨 부인이 말하였다.

“지아비는 나라를 위하여 죽고 아내는 절개를 지키고 몸을 깨끗이 하여 죽어서 함께 가는 것을 실로 달갑게 여기는 바입니다.” 라고 응답했다. 조카 동구(東龜: 후에 贈 大司憲)가 배를 갔다 대고 피신할 것을 간곡히 권했으나 끝내 물리치고 부인은 목욕재계 하고 옷을 갈아입고 함께 자결하였는데 그 얼굴이 평온해 보였다. 임금께서 환궁하여 공의 유소를 보고 하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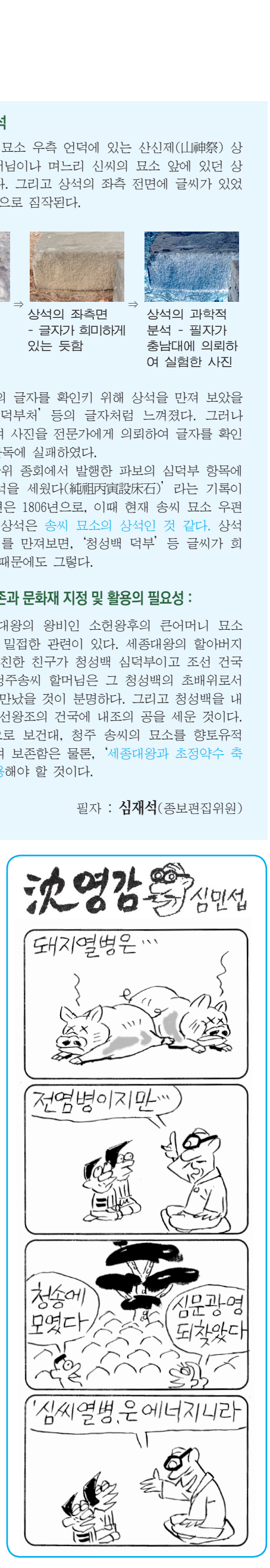
“국가는 심현에게 아무것도 베푼 것이 없는데 절개 지키기를 중신보다 먼저 하였으니 大賢이 아니고 어찌 이와 같이 할 수가 있겠느냐. 또한 그 아내가 절개를 지키기 위하여 함께 죽었으니 매우 아름다운 일이로다. 부인에게 정문(旌門)을 내리고 그 자손들을 기용해서 충렬을 표하도록 하라.” 하셨다.

병자호란은 신생국가인 淸나라가 明나라를 핍박하며 이어 조선에 君臣의 義를 맺을 것을 요구했으나 척화론(斥和論)의 주장에 따라 요구를 물리치자 淸太宗이 직접 10만 대병을 거느리고 강화도를 함락하고 仁祖가 피난한 남한산성마저 함락시킨 다음 삼전도(三田渡)에서 치욕의 화의(和議)를 맺으니 이것이 바로 천추의 한을 남긴 국치인 것이다.

화의 장소에는 청태종의 세 아들을 앞에 세우고 의자에 앉아있고 인조는 두어 칸 앞에 보복하고 앉아서 태종의 세 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 번 절하고 아홉 번 조아리는 항례(降禮)를 올리고야 수치스러운 전쟁이 막을 내린 것이다. 이 엄청난 전쟁의 와중에서 수많은 백성들이 나라를 지키다 명을 달리한 것이다.

이 수많은 순국열사 중에 충렬사에 배향된 29위의 영령 앞에 국치를 되새기며 오늘도 엄숙한 마음으로 祭를 올리는 것이다.

강화 충렬사에서 12세조 (휘: 현)의 제향 모습



만포상공晩圃相公 영의정 심환지沈煥之(1730~1802)

정조 · 순조 시대에 소신껏 정치하다, 청렴하게 살다 간 재상

沈載錫
(문학박사)

1. 沈煥之는 이런 분이다

① 청송심씨 19세손으로(안효공→온양공→응교공[광세]→(・・・)→태현→진→환지), 서인 중 노론 벽파의 영수이다. 벽파는 1795년~1806년 사이에 정국을 주도했고, 그 이후에는 정국에서 배제되었다.

② 조선의 성리학적 질서를 철저히 유지코자 했다. 이로 인해 순조대에 천주교가 급속히 확산되자, 조선적인 질서가 와해되는 것을 방지하려고 천주교 배척에 앞장섰다. 정약용 등의 남인계 인사를 몰아내기 위한 방편이 아니었던 것이다.

③ 심환지는 정조를 옹호하고, 올바른 정치를 위해 왕을 비판했다. 비록 당색은 달라도 주군인 정조에 대한 忠과 義理를 철저한 신조로 삼아 왕을 대하고, 삶을 영위한 심복이자 忠臣이었다. 따라서 정조를 독살했다는 항간의 언설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④ 개간 경작하는 토지에 세금을 감면해 주도록 요구하였고, 숲을 채굴하지 못하도록 건의했으며, 국방과 관련하여 현지 지휘관의 건의를 적극 수용하자고 왕에게 아뢰어 성사시켰다. 그리고 부모의 연세가 많은데 형제가 없이 유배 가는 자의 사면을 요구하여 관철시키기도 하였다.

⑤ 옳다고 믿는 바가 수용되지 않으면 과감히 벼슬을 버리고 퇴거하였고, 각지의 사액서원이 사사로이 추배追配했을 경우 바로 잡을 것을 건의하여 수용되었다.

⑥ 문화적 심미안을 가졌다. 정선, 심사정 등의 그림을 소장하고 화평畵評을 남긴 비평가였다.

⑦ 순조대에 영의정이 되어 장용영을 폐지한 것은 국가 경제의 위기를 극복해 보려는 시도였지, 정조의 정책을 뒤엎으려는 게 아니었다.

만포 심환지 초상

⑧ 필자는 심환지의 글씨를 '만포체晩圃體'라고 칭하겠다. 정조도 인정한 독특한 필체이다.

⑨ 청렴한 재상이었고, 이는 훗날에도 인정받았다.

2. 심환지 개인에 대한 소견

1) 초상화를 통해서

① 영의정 재임 시 제작한 것으로 보이는 조선후기 전형적인 초상화 양식이다. 어진 화가 이명기李命基가 그린 것으로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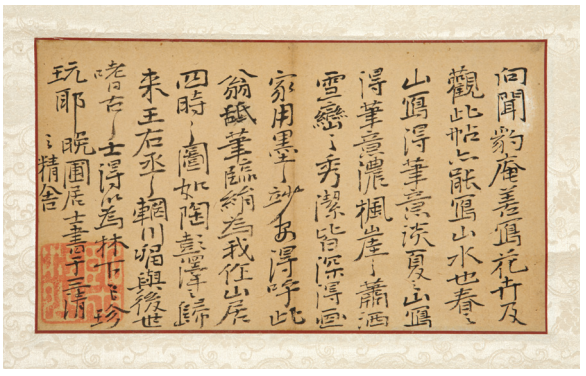
② 의자 뒤의 호피는 정조가 하사한 것이다. 정리곡整理穀 문제를 제기한 후 하사 받은 것이다.

③ 신체적 특징 : 이규상李奎象은 심환지가 "광대뼈가 넓고 어깨가 높으며 소탈하고 강직하여 사대부의 기풍이 있었다."(〈문원록〉『병세재언록』)고 했다. 6대손인 심천보 일가님도 "묘소 이장 시 보니까 환지 할아버님의 기골이 장대하고 키가 컸다고" 말한 바 있다.

④ 이 초상은 오사모에 녹색의 단령을 입고 공수한 채 의자에 앉아 있는 '전신교의좌상'이다.

2) 초상화의 전체적 평가 : 생동감 있는 얼굴의 표정과 전체적으로 조화롭고 안정된 분위기가 화가의 뛰어 난 필력을 보여주고 있는 수작이라고 한다.

3. 독특한 글씨 '만포체晩圃體': 필자는 심환지의 글씨를 '만포체'라고 부른다. 독특한 글씨체이다. 황정연은 "위아래 높이가 같고, 좌우로 납작한 자형字形을 이루거나 길죽해도 또박또박 쓴 글씨체"라고 평했다.(황정연,『大東文化硏究』105, 108쪽).



심환지 글씨 '만포체'

추사 김정희의 추사체가 고금의 필체를 습득하고 창안됐듯이, 심환지의 글씨인 '만포체' 역시 그렇다. 볼수록 정겹게 느껴지고 따라 쓰기 어려운 서체다. 만포체는 순수하고 타협 없는 그의 단정하고 곧은 성격을 보여주는 필체로 느껴진다.

4. 서화書畫 수장가 겸 비평가(황정연,『大東文化 硏究』105) : 만포상공은 남산 아래 저동 외가에서 태어난 서울 토박이였다. 남산 근처를 중심으로 30년 넘게 살면서 〈벽산루碧山樓〉, 〈백련서루白蓮書樓〉로 불리는 장서실을 갖고 여기에 국내외 장서들을 소장하고 참고하였다(『先稿』坤). 정치적 사건으로 용인 정자평으로 이주해 살다, 1787년 서울 삼청동에 거주하기 시작하면서 남공철, 성해응, 심상규 등과 교류하였다. 이무렵 경화사족들이 그러하듯, 심환지도 다수의 서화를 수집하고 수장하였으며 감상하였다.

심환지는 정선을 최고의 화가로 인정하고, 그의 대표작인『경교명승첩』과〈인왕제색도〉를 소유하였다. 그리고 심사정의 〈촉잔도권〉을 구하여 후손에게 돌려줬다. 우리는 심환지의 필적과 서책 등을 정리하고 보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손자 심의요(沈宜堯, 1802~1867)의 공로도 기억해 주어야 한다.

5. 심환지 주요 年譜

서기	나이	주 요 행 적
1730.9.29	1	서울 중구 저동(苧洞) 외가에서 출생
1762	33	사마시 합격
1771	42	庭試문과('慶科') 급제 -〉'正言'이 됨
1780	51	용인 亭子坪으로 이주(자호 '晩圃居士')
1787	58	삼청동 거주
1792	63	金甲島에 잠시 유배, 6세조 심희 묘소 이장 사실을 적은 〈恭肅沈公遷葬事蹟碑〉 작성(파주 묘소 앞 현존)
1795	66	형조판서 제수 2일 후, 병조판서로 임명
1798	69	우의정, 호위대장
1799	70	좌의정 ◎ 1799~1802 : (용인) 35대 '忠烈書院' 장 역임
1800.6	71	(순조대) 영의정[院相]
1802.10.18	73	장용영 폐지 건의(1월), 서거(10월)

6. 정조를 철저히 보좌한 노론 벽파(老論 僻派)의 선봉장

① 정조대 벽파의 수장으로, 국왕을 보좌하다 : 벽파의 입장을 고수하되, 국익에 도움이 되려고 노력하는 비판적 협조자였다. 때로는 정조의 조치에 대하여 거침없이 항의하였고, 이는 충성된 마음에서 나온 것으로 심환지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정조도 다음과 같이 인정하였다. "경은 타인이 말하기 어려워하는 것을 말하면서 진실 된 마음을 스스로 드러냈다(『정조실록』 19.3.25)"

② '어찰御札'로 본 정조와 심환지의 관계는 '정치적 동반자'였다.

ⓐ '을묘원행乙卯園幸'과 정리곡整理穀 문제 : 정조는 부모 회갑을 맞는 을묘년에 수원에서 회갑연을 베풀기로 하였다. 1795년 윤 2월 9~16일이었다. 8일간 이어진 이 행사는 말 779필, 인원 6,000명이 동원되었는데, 심환지는 이해 1월에 병조판서로 임명되었고(『정조실록』 19.1.28), 이번 원행園幸을 주도하였다.

병조판서 심환지(청계천 벽면에 재현해 놓은 반차도 중의 일부)

정조와 주고받은 수많은 어찰이 정치적 동반자임을 증명

행사 주관 기구는 정리소整理所 였고, 소요 비용은 10만 냥이었다. 정조는 이 비용을 세금이 아닌 환곡의 이자로 충당하였고, 절약을 통해 4만 냥이 남았다. 이 이익금을 정조는 백성을 위해 쓰라고 했는바, 일부 관리들이 비리를 저질렀던 것이다. 정조는 정리곡 비리 문제를 심환지가 조정에서 제기하도록 비밀 편지를 보냈고, 심환지는 이에 호응하여 문제를 제기하였다. (『정조실록』 21.10.7) 이 일로 심환지는 정조로부터 호피虎皮를 하사받았으니, 앞서 설명한 '심환지 초상화'가 그것이다.

ⓑ 1799년 10월 1일의 편지 : 만포의 아들 심능종沈能種(1775~1827)이 과거 시험에서, 300등 안에만 들면 합격시켜 주려고 했었다고 전한다. 이밖에도 수 많은 정조의 어찰을 통해 두 사람의 관계가 정치적 동반자였음을 충분히 알려준다.

③ 심환지는 천주교 금지에 앞장섰다. 이는 조선적 질서가 무너질 것을 걱정하여 나온 처사이지, 남인들을 제거하려는 목적이 아니다 : 심환지는 순조시대에 들어 천주교가 정조대보다 급속히 확산되자, 조선적 질서가 무너질 것을 걱정하였다. 이로 인해 당파와 관계없이 관련자를 처벌하였다.

혹자는 정조시대의 남인계 인사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천주교를 탄압하였고, 정약용도 그에 해당한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심환지는 노론의 핵심인 김상헌 가문의 奉祀孫 김건순金建淳도 死罪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고, 그는 결국 처형되었다. 남인계 처벌을 위한 천주교 탄압이 아니었던 것이다.

주문모 신부 역시 제거되었으며, 남인계 안정복은 천주교를 배척하였고 제자와도 절교했다는 이유로 贈職으로 포상(김문식, 『대동문화연구』 105집. 54~56쪽)한 사실에서도 남인계 탄압 수단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④ 장용영 폐지는 재정상의 문제 때문이었다 : 정조가 일시의 권도權道로 설치한 장용영이 재정문제로 인해 백성에게 피해를 주게 되자, 심환지는 "어찌 시급하지 않은 군대를 양성하려고 무수한 비용을 증가시키려 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의 폐지를 건의하였다.(『순조실록』 2년1월 壬辰) 그리고 이는 즉각 시행되었다(김문식, 『대동문화연구』 105집. 57~61쪽). 이러한 심환지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는 고위관료는 아무도 없었다. 당시 경상도 구미 출신 南人이면서 武官으로 서울에 와 있던 노상추(1746~1829)도 장용영의 혁파가 국가를 위해 다행이라고 보았다(『盧尙樞日記』 순조2/2/25).

7. '심환지가 정조를 독살 했다고?'말도 안 되는'정조 독살 주장'

- 정조는 '화병과 그로인한 종기'로 사망했다.

① 독살을 주장하는 책들 : 정약용,〈紀古今島張氏女子事〉 / 이인화, 〈영원한 제국〉 / 이덕일,〈한국사, 그들이 숨긴 진실〉〈조선왕 독살 사건〉 등이다. 유봉학 교수는 이덕일의 주장을 '소설적 상상에 불과하다' 고 단정했다. 〈정조어찰첩〉에서 보듯이, 심환지는 정조의 심복 중의 한 사람이었고, 정치적 동지였다.

② 심환지의 義理 : 부수찬 이석하가 김종수와 심환지 등을 비난하는 상소를 올리자, 65세의 예문관 제학 심환지는 다음과 같이 국왕에 대한 의리를 강조하였다. "지금 신은 노목이 풍상을 두루 겪어 정기가 말라빠진 것과 같으나 유독 이 마음만은 변하지 않아 여전히 성조(聖朝)를 위하여 義理를 부지하고 지킬 수 있습니다." (『정조실록』 18년(1794) 8월 12일).

③ 정조 자신이 의원급 의술을 가진 '의사' 였다. 그리고 정조 사후 심환지가 보여주는 몸부림은 존경하는 국왕을 잃은 충신의 모습 그 자체다 : 손자가 작성한 가장家狀에는 정조가 죽자 심환지는 "살고 싶지 않다(不欲生)", "슬픔이 북받치면 아무 때나 방에서 울어서, 곁에 있는 사람들이 그치라고 권할 수 없었다(哭泣於私室 傍人未能勸止)" 고 한다.

④ (이덕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심환지가 독살설 벗어나려면, 정조 사후 정조의 노선을 계승하려는 노력을 하다가 정치적 불이익을 당하고 노선을 바꾸거나 했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심환지는 ㉮ 순조의 장인이 될 김조순을 지지하였다. ㉯ 내시노비를 혁파하는 등 정조의 노선을 따르려고 하였다. 그러나 반대로 정조의 정책을 되돌리는 조치도 취하였다. 예컨대 홍봉한의 『주고奏藁』 출판을 저지하였고, 홍낙임을 처형했으며, 천주교도의 처형, 장용영의 혁파 등이 그것이다. 심환지는 이러한 조치도 정조의 義理를 따르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⑤ 정조 사후 아쉬움에 대한 표현이 '독살설'로 표출된 것이다. 정조 독살설 같은 허접한 시중의 얘기는 더 이상 떠 돌지 말아야 한다 : 정조는 갑자기 사망한 것이 아니다. 오래전부터 지병을 앓아왔고 그런 와중에 화병과 종기 등이 급속히 악화되어 생을 마감한 것이다.

만포상공은 정조대왕을 애도하는 애책문哀册文에서 "사람도 영령들도 다 흐느껴 울고 하늘도 땅도 빛을 잃었다. 이 넓고 화려한 궁궐을 떠나 어두운 저 세상으로 떠나시려고 한다." 면서 울부짖었다. 어찌 독살설이 나오는가.

8. 심환지의 용인 정자평 위치 추정과 사후 유택의 천장

만포상공은 51세 되던 1780년 체직되어 용인 정자평亭子坪으로 이주하였다. 스스로 '만포거사晩圃居士' 라 자칭하며 거주하던 집을 '만포헌晩圃軒' 이라 했다. 그 위치는 지금의 용인시 기흥구의 보정동이나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으로 추정된다. 만포상공의 묘소는 도시개발로 인해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에서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으로 1998년에 천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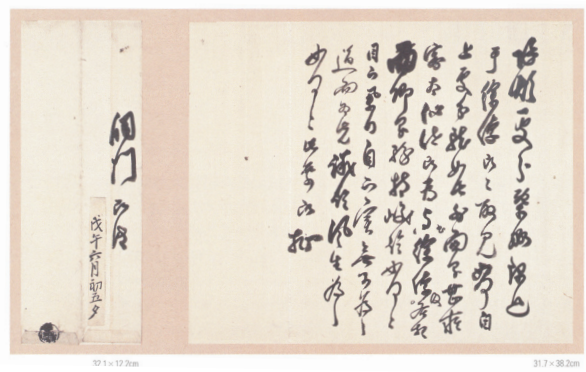
'만포헌' 자리의 하나로 추정되는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의 모습.

천장 전 묘소(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천장 후 묘소(좌측 봉분임.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만포상공의 유택이 있었던 용인 기흥구 보정동의 현재 모습

9. 정조 어찰첩(御札帖)의 발견과 후손 심천보 씨의 소장 유물 기증



정조가 심환지에게 보낸 편지

① 정조 어찰첩 299통 발견과 가치 : 정조의 편지는 대대로 만포가 후손 집안에 보관되어 오다가 언젠가 유출되어 시중에 흘러 다닌 듯하다. 지금은 인쇄되어 유통되고 있으며 자세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앞으로도조선시대 연구에 크게 활용될 것이다.

② 심환지의 7대손인 심천보 일가님, 소장 유품을 경기도 박물관에 기증하다 : 천보 일가는 고교 시절부터 이 유품들을 보관하고 관리하는데 노력하였다. 그리고 최근 들어 이 유품이 단순한 집안의 물건이 아니고 국가 전체의 소중한 유산임을 인식하고 경기도 박물관에 기증하게 되었다고 한다. 보물 1480호인 '심환지 초상'을 비롯한 약 500여 점의 기증 유물은 우리 역사 이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심천보 일가(심환지 6대손) - 눈매가 만포 심환지와 많이 닮았다.

10. 만포 심환지 선조를 추앙하며 :

조선의 22대 국왕 正祖는 심환지를 우의정에 임명하면서 "10년을 불우하게 지냈어도 궁색한 생활을 견뎠고, 요직에 올랐어도 벼슬 없을 때의 자세를 바꾸지 않았다." 고 평가하였다. 그리고 "심환지는 경연에서 조용히 마주하면서 절대로 꾸미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기에(絶無梔蠟), 그를 깊이 인정한다(深許於卿)." 고 평가하였다(『정조실록』 22년(1798) 8월 28일).

청송 심씨가 배출한 '13정승' 중 가장 많이 대중에게 알려진 만포상공 심환지는 정조대왕의 친서인 어찰御札을 소각하지 않고 보관하였다. 이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한국사의 이해에 큰 공헌을 하였다. 이 편지를 통해 정조가 심환지를 정치운영의 동반자로 인정했음을 알게 되었고, 심환지는 정조 독살 혐의에서 자연스럽게 벗어나게 되었다. 만포상공 심환지는 확고한 당론을 바탕으로 정조에게 충성을 다 한 관료였고 충신이었던 것이다.

특별기고

수출 100억불 달성으로 60. 70년대 우리나라 산업화를 이끈

한국 경제발전의 주역 故 심의환 장관 서거 40주기를 기리며

심남규 청송청년회장

심의환 총무처장관

지난 10월 22일이 故 심의환 전)총무처 장관 서거 40주기를 맞는 날이다.

오늘날 우리 기성세대들에게 지난 60~70년대 한국 근대화의 초석이었던 새마을 운동과 그리고 보릿고개의 상징이기도 하였던 통일벼 등은 아직도 과거의 소중한 추억과 아련한 향수로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이들 역사적 사건들과 더불어 우리나라 경제사에 또 하나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1977년 12월 22일 대망의 "수출 100억 달러 달성"이라는 감격적인 사건이 기억에 남아 있다.

한국 수출 100억불 돌파 !

당시 이를 두고 세계 언론들은 대한민국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표현하며 수출 1억 달러에서 시작하여 만 13년 만에 목표 달성을 이룬 괄목할 만한 성장이라 놀라 워 하였다.

이는 분명 우리 한국 경제사의 매우 획기적인 성과이면서 역사적인 위업이기도 하다.

그때 당시 수출정책의 야전 사령관 격으로 상공부에서 60~70년대 우리나라 고도 경제성장을 이끌어 온 주역이 바로 이곳 청송 부남면 출신의 故 심의환(沈宜渙) 前 총무처 장관(상공부 차관 역임)이다.

고인은 1923년 3월 11일 경북 청송의 가난한 농부였던 심능준(沈能濬)의 3남중 막내로 태어나 일제 치하인 1930년 초 향리(鄕里)에서 부남초등학교을 졸업한 후 그는 바로 일본으로 건너가 대판(오사카)공업학교 5년을 졸업하고 해방과 동시에 다시 국내로 돌아와 1945년 10월부터 6. 25동란기인 1950년 10월까지 경북지역 및 대구 등지의 여러 국민학교에서 교편생활을 두루 거치다가 이후 교직을 그만 두고 향학(向學) 열정을 불태우며 1952년 경북대 법정대학에 입학하여 이듬해 졸업 후 1954년 9월 제6회 고등고시 행정과에 합격하는 영광을 안았다.

합격 후 이듬해인 1955년 상공부에서 수습사무관으로 공직에 첫발을 들여 놓은 이래 1962~1965년까지 상공부 중소기업과장, 상공과장, 상정과장, 국립공업연구소 수출공산품 검사부장을 거친 후 1966년 상역국장, 1970~1971년 상역차관보와 광공차관보 등 요직을 두루 거쳐 1972년 8월에는 18년 만에 상공부차관으로 승진하여 5년 5개월 동안 재직하며 최장수 차관기록을 세우는 등 무려 23년간이나 상공부를 지켜오면서 상공행정 분야에 탁월한 업적을 남겼다. 특히 그는 업무 보고 시 언제나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마치 신들린 사람처럼 거침이 없을 정도로 브리핑을 잘 하였다는 평을 들었으며 또한 매사 업무추진에도 빈틈이 없고 치밀하였다.

ㅁ 정통 상공관료로 수출 100억불 금자탑 달성의 주역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지긋지긋한 보릿고개의 가난에서 벗어나 경제발전의 초석을 다지기 위한 10대 국정과제 중 최우선 정책으로 수출주도형 경제개발 추진을 내세웠다.

부존자원이 부족한 국내시장이 좁은 반면 인건비가 싼 양질의 노동력을 많이 가진 우리나라로서는 당시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출주도형 개방체제를 지향하지 않을 수 없었다.

즉 우리의 앞날을 수출에 걸어보자는 "수출 제1주의, 수출지상주의" 정책 이념은 바로 여기서 비롯되었다.

당시 상공부내는 유능하고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있었다. 상역분야에 이철승 차관보, 김우근 상역국장, 심의환 상정과장이 삼각 편대였다. 기술계통으로는 오원철 공업1국장, 엄익호 공업2국장, 안영철 섬유과장, 이성섭 중공업과장, 유각종 경공업과장 등이었다.

당시 수출정책의 총사령관은 박정희 대통령이었고 작전참모본부격인 주무부처는 상공부였다. 6. 25동란 직후 기아에서 허덕이는 절망적인 민생고와 한 많은 보릿고개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수출 제1주의" 밖에는 있을 수 없었다.

당시 상공부에서 유행한 노래가 있다.

"수출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 하겠어요~" "사랑"이라는 가사를 "수출"로 바꿔 불렀다. 수출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했을까 ?

그리고 70년대 수출은 모든 가치의 척도였다. 수출은 나라 경영의 수단이었으며 국민통합의 정착이기도 했다. 이러한 일들로 심 장관을 비롯한 상공부 공무원들은 수출기법을 발굴하고 때로는 독려하는 특전대원들이자 수출을 강력하게 밀어 부치는 돌격대원들이었다.

그 당시 정책구호가 있었다. "전 산업의 수출산업화" "전 품목의 수출상품화" 그리고 "전 세계의 수출시장화"가 바로 그것이었다.

실제로 당시 이낙선 상공부장관은 직원들에게 수출에 미치라고 독려했다.

모든 공무원들을 모아 놓고 제정신만으로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하기 어려우니 미친 듯이 뛰라고 공개독전을 펼쳤다.

당시 심의환 차관도 매일 밤 여러 수출관련 유관단체장들과 회식을 돌며 말술을 마다하지 않고 때로는 토해 가며 수출을 독촉했다.

당시 영어에 능통했던 심 차관은 각국의 통상대표들과 입씨름과 술씨름으로 매일 같이 나날을 보내기도 하였다.

그때에는 분명 100억 달러 달성을 위한 노역이었고 과로가 아닐 수 없었다.

그래서인지 수출전선에 매달렸던 당시 많은 상공맨들이 일찍 세상을 떠났고 그 뒤로 안타깝게도 심 장관도 그리 많지 않은 나이에 뒤따라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이러한 수출정책의 노력과 집념의 결과는 차근차근 결실을 맺기 시작하였다. 심 장관이 1964년 상정과장 때 1억 달러, 1968년 상역국장 때 5억달러, 1970년 상역차관보 때 10억 달러 목표를 달성하고 1975년 차관 때 50억 달러를 달성시킨 후 1977년에는 드디어 대망의 수출 100억 달러 돌파의 달성을 눈앞에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심장관은 그렇게도 염원하던 수출100달러 달성의 신화를 불과 48시간 앞두고 청와대로부터 총무처장관의 입각을 통보받았다.

당시 입각 통보를 받고 축하 인사도 많았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에게 몹시 서운한 마음도 있었다.

ㅁ 총무처장관 재임 1년 10개월 만에 지병 악화로 별세

1977년 12월 20일 총무처 장관에 임명된 후 3개월 전부터 심 장관은 병세가 악화되기 시작했다. 이후 과로 등이 겹치면서 심 장관은 1979년 10월 22일 만 56세의 나이로 서울 성북구 자택에서 지병인 간암으로 별세하였다.

재임 만 1년 10개월 만에 현직 각료가 사망하기는 정부수립 이후 처음 있는 안타까운 일이었다.

정부는 심 장관에게 최고의 훈격인 1등급 청조근조훈장 추서와 장례비 5백만 원을 예비비로 지급하기로 하였고 장례는 총무처장으로 중앙청 광장에서 거행하기로 결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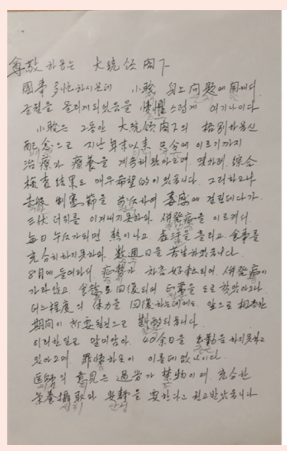
10월 24일 중앙청광장에서 거행된 영결식에는 최각규 국무총리를 비롯한 전 국무위원들과 박준규 공화당의장, 신형식 사무총장 등 여야 국회의원들과 유가족 그리고 공무원, 일반시민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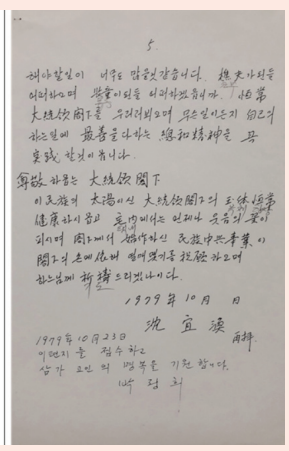
장례위원장인 최각규 총리는 조사를 통해 "그간 고인은 병을 얻어 고통과 불편 속에서도 맡은바 직무를 수행하고자 최선을 다했으며 우리 모두가 고인이 하루빨리 쾌유하기를 기원하였으나 마침내 현직 각료의 몸으로 불귀(不歸)의 객이 되었으니 참으로 비통하고 애석한 마음 금할 길 없다"라고 애도하고 "고인은 항상 의리와 융화를 존중하면서 소임을 다하는 책임감과 투철한 공직자였기에 오늘 우리나라가 처한 내외의 어려움 속에서 인재를 잃은 아쉬움과 추모의 정이 더하다"라고 추모했다.

영결식이 끝난 후 고인의 유해는 가족들이 간소하게 치르겠다는 평소의 뜻을 존중하여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우산리 묘소에 안장되었다.

한편 박정희 대통령도 10. 26사태 하루 전인 10월 25일 자신의 운명을 예감하듯 심 장관의 부인에게 남긴 편지글에서 "인생은 원래 무상한 것이고 회자정리(會者定離) 라고 하였으니 한번 왔다가 한번 가는 것은 정한 이치인 줄 알면서도 너무나도 홀연히 떠나시니 애석하고 허전함을 금할 길 없습니다"라고 고인의 별세를 안타깝고 애석하게 생각하면서 추모의 글을 남겼다.

〈심의환 장관이 운명(殞命) 직전 당시 박정희 대통령께 올린 편지 글〉





2019年 己亥年 秋享祭 奉行

大宗會 主管 享祀

文林郎公(諱 洪孚) 秋享奉行			中臺山墓所 秋享奉行			二世祖 閤門祗侯公(諱 淵) 秋享奉行		
2019년 10월 05일(한마음대회)			2019년 10월 05일(한마음대회)			2019년 10월 09일(음력 9월11일)		
始祖		配位	中臺山墓所			閤門祗侯公		配位
▶初獻	대평(大平)		▶初獻	갑택(甲澤)		▶初獻	현근(玄根)	
▶亞獻	정구(晶求)	상현(相賢)	▶亞獻			▶亞獻	언촌(彦村)	상호(相昊)
▶終獻	재덕(載德)	규화(揆華)	▶終獻			▶終獻	상열(相烈)	양섭(良燮)
▶大祝	능광(能光)		▶大祝			▶大祝	수영(秀永)	
▶執禮	상철(相喆)		▶執禮	상복(相福)		▶執禮	언태(彦泰	

大宗會 主管 享祀

二世祖 奉翊大夫公(諱 晟)秋享奉行			三世祖 靑華府院君(諱 龍) 秋享奉行			靑華府院君 配位 金氏 秋享奉行		
2019년 10월 23일(음력 9월25일)			2019년 10월 11일(음력9월13일)			2019년 10월 11일(음력9월13일)		
奉翊公			靑華府院君			靑華府院君 配位 金氏		
▶初獻	상국(相國)		▶初獻	상현(相賢)		▶初獻		상직(相直)
▶亞獻	상경(相慶)		▶亞獻	재구(載求)		▶亞獻		형찬(炯燦)
▶終獻	재수(載秀)		▶終獻	홍섭(弘燮)		▶終獻		재만(載滿)
▶大祝	상홍(相弘)		▶大祝	홍섭(洪燮)		▶大祝		상홍(相弘)
▶執禮	언태(彦泰)		▶執禮	언태(彦泰)		▶執禮		언태(彦泰)

大宗會 主管 享祀

四世祖 靑城伯(諱 德符)秋享奉行			淸州宋氏 秋享奉行			五世祖 都摠制公(諱 仁鳳)秋享奉行		
2019년10월 13일(음력9월15일)			2019년10월 15일(음력9월17일)			2019년 10월 15일(음9월17일)		
靑城伯		配位	靑城伯配位			都摠制公		配位
▶初獻	상현(相賢)	정구(晶求)	▶初獻	상호(相昊)		▶初獻	상현	
▶亞獻	상국(相國)	상열(相烈)	▶亞獻	상우(相祐)		▶亞獻	도섭	
▶終獻	은섭(殷燮)	재훈(載勳)	▶終獻	철용(喆用)		▶終獻	재봉	
▶大祝	상홍(相弘)	양섭(良燮)	▶大祝	철유(哲裕)		▶大祝	철유	
▶執禮	언태(彦泰)		▶執禮	언태(彦泰)		▶執禮	상호	

小宗會 主管 秋享祀

五世祖 仁壽府尹公(諱 澄)秋享奉行			靑原君(諱:淙)秋享奉行			舍人公(諱:順門)秋享奉行		
2019년10월 15일(음력9월17일)			2019년 11월 04일(음력10월08일)			2019년10월17일(음09월19일)		
仁壽府尹公			靑原君					配位
初獻	구형(求亨)		初獻			初獻	대평	
▶亞獻	상열(相烈)		▶亞獻	복섭		▶亞獻	응식	
▶終獻	규화(揆華)		▶終獻			▶終獻	형찬	
▶大祝	우경(愚慶)		▶大祝			▶大祝	상홍	
▶執禮	재구(載求)		▶執禮			▶執禮	홍섭	

2019年 己亥年 秋享 獻誠金 내역

獻誠金 接受 內譯

구 분	宗中(姓名)	金 額	宗中(姓名)	金 額
始 祖 (청송)	대종회	3,470,000	신천공파지경종회	300,000
			합 계	**3,770,000**
二世祖 (함열)	도총제공원주종회	100,000	좌승지공파임피종회	200,000
	안효공파종회	300,000	**합 계**	**600,000**
二世祖 壇 (철원)	인천 심재석	30,000	**합 계**	**30,000**
三世祖 (안성))	도총제공원주종회	100,000	안효공파종회	300,000
	인수부윤공파종회	300,000	**합 계**	**700,000**

四世祖 (연천)	철원 봉익공종회	100,000	안효공파종회	300,000
	도총제공원주종회	100,000	당진찰방공종회	100,000
	인수부윤공파종회	300,000	**합 계**	**900,000**
四世祖 配位 (청주)	도총제공원주종회	100,000	안효공종회	300,000
	판사공종회	200,000	부사공종회	300,000
	지성주사공종회	200,000	**합 계**	**1,100,000**

“임진왜란 때 끌려가 일본 도예 가문의 기둥이 된 님이시여”

故 제14대 심수관 선생 추모회…심대평 회장 추모사

11월 18일 오후2시 서울 을지로 프레지던트 호텔 부람스홀에서 개최된 고 제14대 심수관 추모회에서 심대평 청송심씨대종회 회장의 추모사가 있었다. 다음은 추모사 전문

14대 심수관

지난 2월 13일부터 2박 3일간 청송심씨 일가 20명이 일본 가고시마로 심수관 도요를 방문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계기는 메이지유신 150주년을 기념해 가고시마시 여명관에서 열리는 ‘화려한 사쓰마야키전’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둘째날 오후에 전시회를 관람할 때의 일입니다. 현지 고교생들이 단체로 관람을 왔는데 마침 해설사가 12대 심수관의 작품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행 중 한 명이 학생들에게 “우리는 이 작품을 만든 사람과 같은 집안인데, 이 전시회를 보려고 20명이 한국에서 왔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못 믿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사실인 것을 알고는 곧바로 해설사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서 “대단하다”고 감복했습니다.

옆에 있던 일본인 할머니 2명도 놀란 표정으로 “이 학생들은 도쿄대학에도 많이 들어가는 가고시마의 명문고교생들”이라면서 우리 일가들에게 연신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이 광경은 심수관 일가가 가고시마에 얼마나 깊숙이 뿌리 내리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존경받고 있는지를 보여주었으며, 당연히 저희 일가들의 가슴도 뜨거워졌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사쓰마 도자기의 탁월한 후계자였던 한 도예가의 삶을 추모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고 14대 심수관 선생은 약력 소개와 영상을 통해 보았듯 유구한 사쓰마 도자기의 역사에 풍요로운 예술성을 더한 예술가로서 존경을 받아왔습니다.

일본과 한국에서 모두 그의 별세를 아쉬워하는 연유일 것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심수관 선생은 잘 아시다시피 1598년 정유재란 때 조선의 남원에서 일본의 가고시마로 끌려간 도공의 후예였습니다.

그는 젊었을 적 도공의 길이 아니라 군인을 꿈꿨습니다. 그런 그에게 선친인 13대 심수관 선생은 마당의 나무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 나무들이 스스로 원해서 여기에 서 있는 것이 아니다. 산과 들에서 자유롭게 자라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있는 자리에서 목숨이 다할 때까지 노력한다. 우리도 저 나무와 같다.”

이 말을 듣고 14대 심수관 선생은 마음의 방황을 끝냈으며, 그 후 탁월한 작품활동을 했을 뿐만이 아니라 선친의 유업을 하나하나 실천한 효자가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1998년 서울에서 개최한 〈400년만의 귀향-일본 속에 꽃피운 심수관가 도예전〉이었습니다.

선친이 1964년에 별세하며 남긴 유언은 “아들아, 조상들이 이곳에 온 지 400년이 되는 1998년을 잘 부탁한다”는 것이었고, 14대심수관 선생은 그때가 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30년 이상을 고민했습니다.

그는 선조 대대로 만든 도자기들에도 혼이 깃들어 있다면 고향에 가보고 싶을 것이라는 생각에 온갖 반대와 난관을 극복하고, 가고시마에 있던 역대 조상들의 귀중한 작품 400여 점을 모두 한국으로 갖고 와 동아일보 일민미술관에서 전시회를 열었고, 김대중 현직 대통령이 관람하는 등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당시 그는 남원 교룡산에서 불을 채화해 가고시마로 갖고 갔고, 그 불은 지금도 가고시마에서 영원히 불타며 사쓰마도자기를 구워내고 있습니다. 남원의 불을 일본으로 가져가는 일을 진두진휘한 분이 바로 여기 계신 15대 심수관 선생입니다. 14대 심수관 선생은 나중에 한국에서 열었던 이 전시회가 일생일대의 모험이었다고 회고했습니다.

그는 또 공방을 늘리고, 노보리가마를 만들고, 역대 조상들의 작품을 안전하게 모아 전시하는 수장고를 만들면서 사쓰마 도자기의 번영에 기여했습니다. 그의 열정이 일본의 국민작가 시바 료타로의 ‘고향을 어찌 잊으리오’의 모델이 되고, 대한민국 명예총영사가 되는 원동력이 되었을 것입니다.

14대 심수관 선생은 자신의 핏줄과 근본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잊지 않으면서도 자신이 살고 있는 일본도 배척하지 않은, 진정으로 한일 화해를 위해 노력한 분이었습니다.

1965년 그는 처음으로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한일국교정상화반대로 대학가가 시끄러울 때였습니다. 그는 서울대 강의에서 계란을 맞을 각오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36년의 한을 말한다면 나는 360년의 한을 말해야 한다.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는 것 아닌가.”

그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사쓰마 도자기는 불행한 시대의 바람에 아버지인 한국의 종자가 어머니인 일본의 대지에서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운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14대 심수관 선생은 2002년 한일 월드컵공동개최를 전후해서 만든 한일직능교류회의의 일본 측 실행위원장을 맡아 2002명의 일본인 직능인을 인솔하고 한국을 방문한 것도 그런 소신의 결과였습니다.

한일관계가 최악이라는 요즘, 한일간의 선린우호를 위해 머리가 아니라 마음에서, 입이 아니라 행동에서 나온 그의 탁견과 실천력이 그리워집니다.

저는 오늘 청송심씨 대종회 회장으로서 14대 심수관 선생을 추모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심문을 뛰어넘은 인물입니다. 나는 그가 전통에 살면서도 한국과 일본이라는 국경을 뛰어넘은 진정한 자유인이었고, 일본 규슈의 남단 가고시마의 조용한 마을에서 평생을 지냈으면서도 예술혼만큼은 천의무봉이었던 세계인이라는 헌사를 영전에 바칩니다.

14대 심수관 선생은 15대에게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돌아가는 녹로의 움직이지 않는 심(芯)이 되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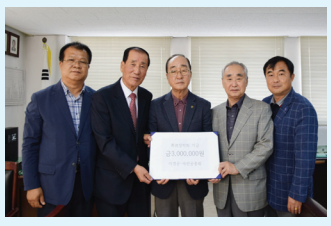
녹로는 회전하지만 그 중심에 있는 심은 흔들리지 않는다. 현상에 속지 말고, 주위에 휘둘리지 말고, 자신이 가야할 길을 묵묵히 가라는 뜻입니다.

이미 15대가 원숙한 작품활동을 하고 있고, 16대도 일찌감치 도예가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행복한 일입니다.

14대 심수관 선생님, 이승의 일은 모두 후손과 우리에게 맡기시고 부디 편안히 잠드소서.

2019년 11월 18일 청송심씨 대종회장 심대평

이경공파종회와 곡산공종회 장학금 기탁 한마음대회 경비 잔액 300만원 쾌척



지난 10월 31일 이경공파종회 재창 회장과 곡산공종회 재갑 회장은 한마음대회 경비를 절약하고 남은 300만원을 청심장학회 장학금으로 전달하였다.

▣ 종보 137호 정정

① 3면 아래 왼쪽 : ‘生年은 未傳’ ⇨ ‘生年은 1408년’
② 5면 〈특이한 자료 소개〉 :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 ‘〈산의실기〉와 〈靑松의 뿌리(36호, 1993)〉에도 게재되어 있지만’
③ 6면에서 망세정공 생몰 년대 : ‘(?~1467)’ ⇨ ‘(1408~1467)’
④ 7면 17)번 : ‘실천적 실학의 대가 심대윤’ 은 삭제 (심대윤은 안효공계임)
⑤ 8면 종보찬조 3만원 재운(대전)→재운(화성)

▣ 종보 139호 정정

16면
특별회원 ① 50만원 : 재득 ⇨ 재득(파주시민회장)
② 30만원 : 지파종회 진주종회(회장 동섭) ⇨ 동섭(대종회부회장)
지파종회 ① 1백만원 : 선산광주부윤공종회(회장 무섭) ⇨ (회장 진호)
② 30만원 : 김포종회(회장 윤섭) ⇨ 김포신천공파종회(회장 윤섭)

공 지 사 항

-. 2019년분 대종회 임원회비가 미납되신 임원께서는 12월15일까지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회장: 30만원, 감사: 20만원,
이사: 5만원

청심장학회가 국가의 동량을 기르겠습니다.

★ 장학재단 기부금 ★
예금주 : 재단법인 청심장학회
농 협 : 301-0256-8973-11

송금안내

임원회비 · 종보찬조 등 입금계좌
청송심씨대종회
농 협 : 301-0107-5873-71

각종 찬조현황(2019. 8. 1 ~ 2019. 11. 25)

■ 각 찬조 50만 원 이상 찬조 시 2회 사진게재

곡산공종회	이경공종회	재봉	규선	광주두암종회	울산내금위종회	공숙공종회
(회장 재갑)	(회장 재창)	(사복시정공파창원종회고문)	(종보편집위원장)	(회장 헌섭)	(회장 규화)	(회장 충택)
장학찬조 300만원 2019년10월	장학찬조 100만원 2019년9월	장학찬조 300만원 2019년9월	종보찬조 100만원 2019년7월	종보찬조 150만원 2019년6월	종보찬조 100만원 2019년5월	

임원회비

회장회비	3백만원	대평(회장),
부회장회비	25만원	능광(청송.추가분)
감사회비	20만원	충진(감사), 종혁(감사)
이사회비	5만원	춘보(서울), 우경(광주), 성기(강원), 준섭(광주), 형무(인천), 재운(대전), 인보(충북), 홍섭(청송)

장학창조

3백만	규선(종보편집위원장)
3백만	이경공(회장 재창), 곡산공종회(회장 재갑)
1백만원	재봉(사복시정공 창원종회 고문)

종보찬조

25만원	능광(청송)
20만원	정수종중(회장 광남)
12만원	강채(전남)
10만원	언촌(수원), 장래(봉만), 신천공파지경종회(회장 상달), 은섭(인천)
5만원	희보(시흥), 능봉, 우경(광주), 상영(일산)
3만원	재충(남양주), 백규(서울),
2만원	상훈